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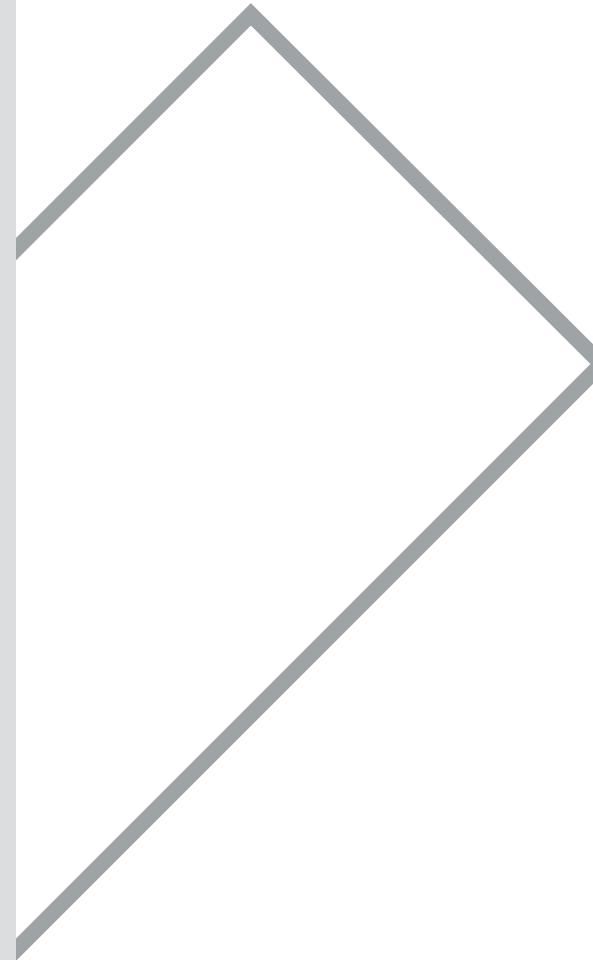
# 책이 있는 자리

vol. 245



# 책이 있는 자리

vol. 245



## 책이 있는 자리

vol. 245

2021년 여름호

미래엔 핵심가치 함께하는 신뢰 막힘없는 소통 번뜩이는 창의 가슴뛰는 도전

(주)미래엔 | (주)미래엔서해에너지 | (주)미래엔인천에너지 | (주)미래엔에듀케어 | (주)오션스위즈 | (주)엔베스터  
(주)현대문학 | 전북도시가스 | (주)부흥산업개발 | 목정미래재단 | (주)미래엔에듀파트너 | (주)영실업

발행인 : 신광수 | 발행일 : 2021년 7월 6일 | 발행처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 | 기획 및 편집 : M!실 차하연 T. 02) 3475-3980

커버 디자인 : 미래엔 | 편집 디자인 : BMCI | (주)보령C&I T. 02) 2272-4548 | 인쇄 : (주)미래엔(이 책은 미래엔의 CTP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책이 있는 자리』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www.mirae-n.com](http://www.mirae-n.com)

가격 : 500원

도전이  
있는  
자리

Mirae N



Portrait  
of Mahatma  
Gandhi



Still life  
with red  
flowers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

- 마하트마 간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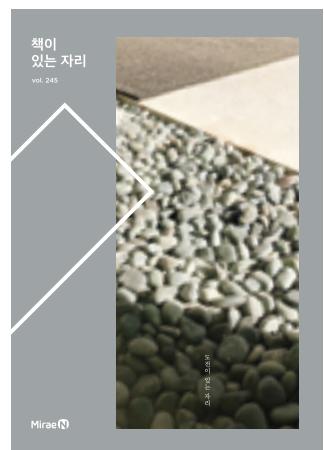


## 시대를 넘어 미래를 보는 힘

1955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순문예지 월간 「현대문학」은 김환기, 천경자, 한복, 박호섭, 장욱진 등 당대 최고 화가들의 작품으로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원래 있던 화가의 작품을 그대로 싣는 게 아니라 오직 「현대문학」의 표지를 위한 그림을 새로 그리게 했고, 화가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전쟁 후 경제난에 시달렸던 화가들에게 문학 잡지의 표지화를 그린 것은 자신의 그림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편이자 직접적인 수입원으로써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문학과 미술은 서로 기대어 '표지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며 예술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환경은 바뀌고, 미래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시대를 이끌었던 힘은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 CONTENTS



### COVER STORY

책의 모서리 그래픽과  
빛과 그림자가 만드는 선의 율동감,  
자갈들과 콘크리트의 대비로  
여름의 경쾌함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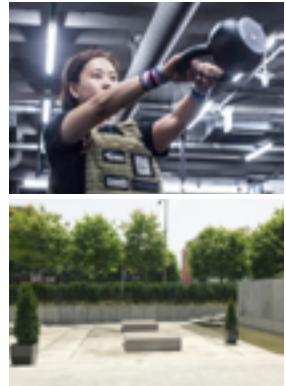
●  
미  
래  
를  
읽  
다

- 10 기고문  
‘키즈’ 전성시대
- 16 일적인 공간  
완구와 콘텐츠의 결합, 영실업
- 22 현장에 가다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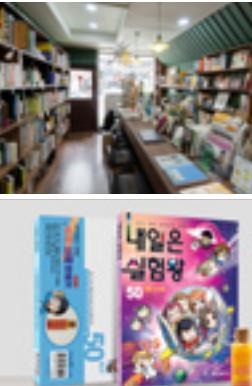
●  
마  
음  
을  
읽  
다

- 32 미래엔인의 이중생활  
나를 넘는 즐거움, 크로스핏
- 38 엔키피디아  
회사 안 나만의 캐렌시아
- 42 시시풀풀  
구독 서비스, 어디까지 써봤니?



●  
세  
상  
을  
읽  
다

- 50 수상한 책방  
우분투북스
- 56 세 개의 단어  
만화 작가 홍종현이 말하는  
「내일은 실험왕」



●  
미  
래  
엔  
을  
읽  
다

- 64 신간 소개
- 70 미래엔 뉴스
- 76 빨간 우체통
- 78 사우동정



미래  
를  
읽다

10 기고문  
'키즈' 전성시대

16 일적인 공간  
완구와 콘텐츠의 결합, 영실업

22 현장에 가다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展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 ‘키즈’ 전성시대

글\_ 유진희 비즈니스컨설턴트 現 플레이어 마케팅 총괄·舊 MCN협회 사무국장

저출산 시대에도 키즈 산업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키즈 콘텐츠 시장도 제3의 부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입장에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키즈 콘텐츠 산업의 동향과 남은 과제들을 알아봅니다.



### 황금보다 귀한 존재, 키즈(Kids)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앞으로도 저출산 기조는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아동 1인당 소비 금액은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황금처럼 귀한 존재가 된 셈입니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도 키즈 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국내 키즈 산업 규모는 2002년 8조 원에서 2012년 27조 원, 2017년 40조 원, 2020년 50조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분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한 숙박 앱은 자녀 동반 숙박객 대상으로 어린이 전용 상품을 론칭하여 한 달 만에 139%의 매출 상승을 경험했고, 국내 대표 전자 기업은 ‘뽀로로’와 협업 마케팅을 진행하여 전년 보다 30% 이상 매출을 늘렸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키즈 전용 펀드 봄’이 불기도 했습니다. 국내 31개 어린이 펀드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무려 64.7%였습니다.

### 키즈 콘텐츠, 사양산업에서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이런 추세에 힘입어 키즈 콘텐츠 시장도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30대 후반 이상의 성인들이라면 <뽀뽀뽀>와 <TV유치원: 하나둘 셋>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콘텐츠가 방영되었던 1980년대는 키즈 콘텐츠가 국민 콘텐츠로 소비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즈 콘텐츠 시장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오랜 암흑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방송은 상업화 바람 속에 구매력 있는 20~30대에 집중했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바빠져 TV 시청 시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키즈 콘텐츠 시장이 다시 부흥의 계기를 맞은 것은 ‘뽀로로’와 ‘아기상어’로 대변되는 영유아 캐릭터 IP의 성장과 ‘유튜브’ 중심의 뉴미디어 생태계가 발전하면서부터입니다. 뽀로로는 출시 이후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키즈 한류’의 포문을 열었고, 키즈 콘텐츠 시장은 2010년대 중반 유튜브 시대가 도래하면서 2차 부흥을 맞았습니다. 헤이지니, 뽀요 같은 크리에이터를 비롯해 아기 상어, 핑크퐁 같은 히트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한 덕분입니다. 이런 키즈 한류 덕분에 2020년 국내 콘텐츠 매출액은 약 125조 원, 수출액은 6%가량 증가하며 K-콘텐츠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즈 콘텐츠 시장은 IT 기술과 결합한 미래 장르이자, 통신사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퀄리 콘텐츠로서 3차 부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즈 콘텐츠

코로나 이후 키즈 콘텐츠 시장에서는 ‘온라인’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기를 꺼렸던 부모들이 이제는 안전과 위생 때문에 다른 활동 대신 온라인 채널로 키즈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키즈 콘텐츠의 전체적인 수요를 높이면서 키즈 채널과 콘텐츠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즈 콘텐츠 산업은 크게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첫째, 키즈 콘텐츠는 유료 미디어 서비스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IPTV 3사와 넷플릭스, 애플TV 등의 스트리밍 사업자들은 가입자 유치와 락인(Lock-in)을 위한 전략으로 키즈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2017년 선보인 키즈 콘텐츠 전용 플랫폼 ‘아이들나라’ 이용자는 2020년 140만 명을 돌파했고, 덕분에 LG유플러스는 IPTV 가입자 순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의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플레이’ 또한 키즈 콘텐츠를 강화한 이후, 활성 이용자 수가 매월 20%가량 늘었습니다.

### 둘째, 다시 ‘가족 시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장소, 시간, 취향을 반영한 ‘개인 시청’이 대세로 굳혀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온가족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코로나19 이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중요해졌습니다. 키즈 콘텐츠는 부모, 조부모 세대가 아이와 함께 시청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가족을 한자리로 모으고 있습니다.

### 셋째, ‘교육 콘텐츠’가 중요해졌습니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온라인 교육 자료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곳곳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다수의 교육 콘텐츠들이 등장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교육 환경이 빠르게 안정화되었습니다.

2차 부흥기가 놀이 중심의 ‘플레잉’ 콘텐츠 위주로 발전했다면, 3차 부흥기는 학교 교육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들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키즈 콘텐츠 제작에 뛰어드는 사업자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넷째, ‘키즈 한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뽀로로는 ‘뽀느님’으로 불리며 국민 캐릭터가 되었고, 아기상어는 글로벌 최다 유튜브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채널의 콘텐츠는 2021년 3월에 중국 빅챔스와 계약을 맺고 중국 80% 지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과거 미국 디즈니와 일본 만화 캐릭터들을 보며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세계의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접하며 성장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키즈 콘텐츠는 메타버스 콘텐츠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키즈 콘텐츠는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전제적인 메타버스 기술 기반의 콘텐츠 시장을 확장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가상 환경에서 게임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를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AR 기술을 이용해 ‘생생 체험학습’ 기능을 제공하고 Btv는 실시간 3D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살아 있는 동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2017년부터 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쌍방향 동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키즈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남겨진 과제

이런 추이를 고려했을 때 콘텐츠 제작자들은 IPTV, OTT,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도달률(Reach)’을 높이고, 어린이 및 부모 세대와 활발히 소통하여 충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키즈 콘텐츠의 3차 전성기를 이끈 인기 캐릭터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를 통해 콘텐츠의 확산과 공유, 재시청을 유도했고,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여 아이들은 물론 전 세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한 키즈 콘텐츠를 기획할 때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공동 요인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키즈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동작, 표정, 음악 등 비언어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언어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당장의 성과가 아니더라도 뚝심 있게 콘텐츠를 밀고 나가는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경쟁이 과잉된 상황에서는 콘텐츠 퀄리티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에 대한 ‘브랜드’가 중요해지고,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면 그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IP 비즈니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콘텐츠에 대한 브랜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모든 산업 영역에서 ‘키즈’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키즈 관련 기업 주가들은 고공 상승 중이고, 단일 IP 기반의 OSMU 제작이나 트랜스미디어로의 확장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 곳곳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키즈’로 통하는 키즈 전성시대, 당분간 키즈 콘텐츠의 부흥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것은 우리의 뜻입니다.

#### 키즈 산업 용어 사전



##### 골든 키즈(Golden Kids)

외동아이로 태어나 귀하게 자란 어린이 세대



##### VIB(Very Important Baby)

VIP(Very Important Person)을 본뜬 신조어로, 매우 소중한 어린이라는 뜻. 내 아이를 위해서는 소비를 아끼지 않고 남에게 뒤지지 않게 자녀를 키우려는 소비층을 지칭한다.



##### 엔젤 산업(Angel Industry)

영유아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총칭하는 말로, 가계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엔젤 계수(Angel Coefficient)에서 유래했다.



##### 에잇 포켓(Eight Pocket)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부모, 양가 조부모, 이모, 삼촌, 고모 등 8명의 친척이 한 아이를 위해 지갑을 연다는 뜻. 여기에 주변 지인들까지 합세한 것을 뜻하는 텐 포켓(Ten Pocket), 조카에게 선물 공세를 마다하지 않는 골드 앤트(Gold Aunt)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 완구와 콘텐츠 결합으로 새로운 시장 만든다 영실업 디자인연구소 김현동 실장

글\_ 편집실  
사진\_ 뉴토피아 프로덕션

지난해 미래엔은 국내 토종 완구기업 영실업을 인수하며 교육과 출판, 완구, 캐릭터를 연계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키즈 산업의 대표주자로서 영실업은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실업에서 완구 개발을 총괄하는 디자인연구소 김현동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실업은 1984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 토종 완구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시크릿쥬쥬, 콩순이, 또봇이 있습니다. 1년에 100여 종의 장난감을 출시하며, 수년째 국내 완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 성별, 연령대별 라인업 갖춘 국내 대표 완구기업

영실업은 2009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자동차 변신 로봇 또봇을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변신 로봇 완구는 해외 소싱 제품만 있었고 이들을 따라잡기엔 국내 완구업체의 기술력과 제작 환경이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영실업은 새로운 도전을 했고 또봇은 우리나라 완구 시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또봇은 ‘우리나라도 변신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로 회사의 사활을 걸고 5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놓은 제품이었어요. 2009년에 또봇을 처음 출시하고 2013년에 가정 방문 조사를 했을 때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봇이 최소 3개였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4년간

출시한 20여 종의 모델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남아용 완구 시장에서 정말 대박을 터뜨린 거죠.

또봇은 국내에서 완구에 스토리를 부여해 애니메이션을 만든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또봇의 성공 이후 국내 다른 완구업체들도 완구와 애니메이션을 함께 제작하는 방식을 따라해서 현재는 대부분의 로봇 완구들이 이렇게 출시되고 있어요.”

장난감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디자인부터 출시까지 개발에만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획 단계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죠. 영실업에선 남아용 완구와 여아용 완구를 구분해서 기획합니다. 장난감에 대한 아이들의 특성과 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01 또봇 트윈 블레이드  
02 또봇 기간트V



03 (자율로 공부하는) 꼬마낚시왕  
04 동화로 배우는 코딩컴퓨터  
05 콩짝콩짝 두뇌운동매트



나만의 매직 캐리어 06  
반짝반짝 네온 스케치북 07  
시크릿 댄스매트 08



“콩순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오감을 발달시키는 등 브랜드 철학상 교육적 요소가 있는 소꿉놀이 제품이 많아요. 시크릿쥬쥬는 ‘엄마 따라하기’를 즐기는 여자아이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제품들이 반응이 좋고요. 스마트폰처럼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셀카폰’이나 명품 가방 모양의 ‘핸드백’ 제품이 꾸준히 잘 판매되고 있죠.

반면 남아용 장난감은 쓸림 현상이 심해요. 한 해 또봇이 뜨면 다른 경쟁 제품의 판매율은 절반으로 떨어질 정도로 유행을 많이 타요.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지점이 있어야 해서 배틀 완구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남아용 완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아서 여러 시도를 하고 그중에 하나가 성공할 조짐이 보이면 그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해요.”



완구 시장은 사용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깃 연령대와 성별을 정해 놓고 여아용 인형이나 남아용 로봇 하나에만 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실업은 성별과 연령대별로 완구의 라인업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남아, 여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영실업의 장점이자 차별점이에요. 단순히 매출을 목표로 하기보다 아동의 발달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완구의 역할을 우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종산업과의 협업에서 돌파구 찾는다

지난해 영실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의 모멘텀을 맞았습니다. 국내 완구 시장의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량이 20% 줄었고, 장난감 대신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노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저출산과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영실업은 초등 저학년과 시니어층까지 타깃 연령층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IT, 교육, 출판 같은 이종산업과의 협업도 이런 방면 종의 하나입니다.



“올해 연말 IT기업과 협업해서 테크토이를 출시할



계획이에요. 콩순이에게 '율동송 틀어줘'라고 말하면 콩순이가 바로 반응하는 기기로, 율동송 외에도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거나 영상 콘텐츠를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아이들을 스마트폰 스크린에 노출하는 대신 소리로 상상력을 키워 주자는 취지로 기획한 프로젝트인데 아이들에게는 재미와 배움을, 부모들에겐 육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줄 거예요.”

도 교육 커리큘럼 기획과 출판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간 뛰어들지 못한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교육 출판 기업인 미래엔과 협력할 수 있게 된 거죠. 콩순이부터 시작해서 다른 캐릭터 IP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완구와 콘텐츠로 만드는 더 나은 미래

이밖에도 영실업의 캐릭터 IP를 바탕으로 미래엔과 함께 '에듀테인먼트' 분야에 진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콩순이로 교구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교구는 교육, 출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캐릭터 IP와 교구 제작 역량,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결합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영실업은 완구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또봇의 성공을 바탕으로 완구만 제조하는 기업에서 나아가 콘텐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어요. 이 콘텐츠는 교육, 애니메이션, 게임, 뉴미디어 콘텐츠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봇, 시크릿쥬쥬를 비롯한 자사의 캐릭터 IP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은 케이블TV 채널은 물론 통신사의 VOD,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고 각 브랜드별 유튜브 채널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저출산과 코로나 팬데믹,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과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영실업은 다양한 연령대를 타깃으로 시장을 넓히는 한편,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크리에이터, 외주업체와 협력해서 자체 기획한 솔풀 콘텐츠, 완구를 활용한 룰플레이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 범위를 확대했고, 게임 콘텐츠와 연계된 완구 개발도 기획 중입니다. 또한 마블 유니버스처럼 영실업의 다양한 캐릭터 IP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유는 콘텐츠 소비가 완구 판매와 브랜드 충성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이 아니라 고객의 전 생애와 함께 하는 브랜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콘텐츠를 접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면 우리가 만든 키덜트 제품이나 완구에 친밀도와 충성도가 높을 것이고 이것이 구매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재미 요소와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어난 예술의 꽃  
격동의 시대

###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展

1930~50년대 문학과 미술의 밀월 관계를 집중 조명한 대규모 기획전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가 지난 2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월간 「현대문학」은 이 전시에서 미술 작품을 담아낸 표지를 모은 설치 작품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글\_ 편집실

사진\_ 뉴토피아 프로덕션



### 예술가들의 관계망 속에서 피어난 근대기 예술

1930년대부터 1950년대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까지 우리 민족에게 암흑의 시기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서양의 새로운 문학가 급속히 유입되며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몰고 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잇는 변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줬고, 예술가들은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지용, 이상, 김기림, 김광균 같은 시인들과 이태준, 박태원 같은 소설가, 그리고 구본웅, 김용준, 최재덕, 이종섭, 김환기 같은 화가들이 이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예술가죠. 누구보다 섬세하고 예민하게 시대적 삶을 통찰한 이들은 개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와 신문사를 중심으로 형성한 연대감을 기반으로 경성의 곳곳에 모여 예술의 가치를 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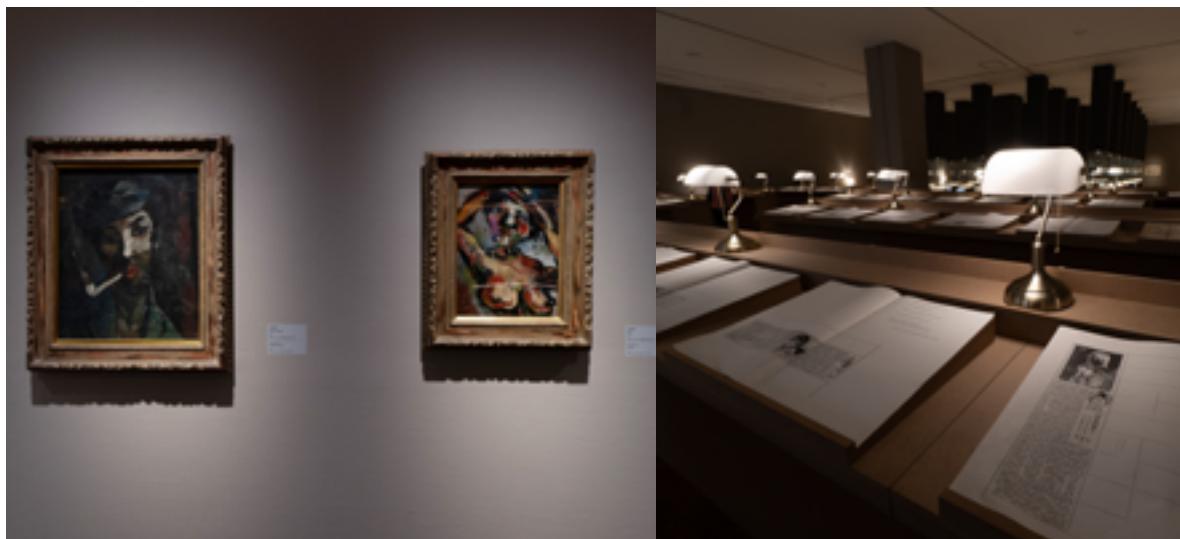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는 1930~50년대 미술인과 문학인들이 새로운 예술 세계를 꿈꾸며 형성한 관계망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을 발굴해 소개하는 특별전입니다. '전위와 융합', '지상(紙上)의 미술관', '이인행각(二人行脚)', '화가의 글·그림'을 주제로 나뉜 4개의 전시공간에는 총 1400여 점의 작품과 200여 점의 서지 자료, 각종 시각 자료 300여 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과 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교감하고, 이것이 당대의 문화예술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 예술인의 아지트에서 펼쳐진 '전위와 융합'

1933년, 모던보이 이상이 종로에 열었던 다방 '제비'를 배경으로 구성된 제1전시실에서 시간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야수파 풍으로 그려진 구본옹의 작품이 벽에 걸려 있던 다방 '제비'는 보잘것없는 공간이었지만, 이 시대 미술인과 문학인들이 모여 예술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공유하던 아지트였습니다. 이상, 박태원, 김기림을 비롯한 문인들과 구본옹, 황슬조, 길진섭, 김환기 등의 화가들은 이곳에 모여 야수파와 초현실주의, 추상에 이르는 최신 양식 그리고 문학과 음악과 영화 등 서양 문물이 전하는 충격을 공유하며 독특한 자신들의 세계관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레트로한 감성과 미샤 엘만의 협주곡 그리고 다방에 모인 예술가들의 흑백사진으로 채워진 전시실에는 당시 활동했던 예술가들의 관계망 그리고 실험적 시도와 도전으로 태어난 글과 삽화 등이 가득해 보고 듣고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 인쇄 미술에서의 교류, '지상(紙上)의 미술관'

이 시기 문학인과 미술인의 글과 그림이 가장 활발하게 어우러진 곳은 신문 소설과 출판물이었습니다. 제2전시실에서는 문인과 미술인의 교류 마당이었던 신문사와 출판사에 주목하고, 1920~1940년대를 중심으로 한 '인쇄 미술'을 소개했습니다.

3.1 운동 이후 민간 신문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삽화가 어우러진 신문 소설이 큰 인기를 얻으며 발행 부수를 좌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각 신문사는 인기 문인의 소설에 유명 미술인의 삽화를 넣어 독자의 호감을 사고자 했죠. 이러한 분위기를 담은 전시장은 마치 도서관 신문 진열대 느낌이 나도록 꾸며졌습니다. 고풍스러운 뱅커스 램프가 켜진 이곳에서 관람객은 당시 주목받았던 다양한 신문 소설이나 시화를 하나하나 넘기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는 근대기의 아름다운 출판물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윤동주도 필사했다는 백석의 시집 「사슴」부터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정주의 「화사집」 등 현재도 널리 사랑받는 시집의 초판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각별한 문인과 화가, '이인행각(二人行脚)'

문학인과 미술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글과 그림을 탄생시키곤 합니다. 제3전시실은 각별한 관계에 있는 문학인과 미술인을 선정해 그들이 나눈 이야기와 관련된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종교를 매개로 만난 정지용과 장발, 월간지 편집실에서 동료로 연을 맺은 시인 백석과 삽화가 정현웅, 신문사 사회부장과 신입기자로 만나 세계관을 공유한 이여성과 김기림, 일본 유학 중에 만나 예술관을 나눈 이태준과 김용준까지 수많은 문인과 화가들이 상호작용하며 이를 아름다운 작품에 담아 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개인의 관계성을 통해 연대되었던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이를 통해 작품을 보다 풍부한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예술적 유산을 이어 받은 다음 세대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관계망을 통해 한국 근대기 문학의 탄생 배경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중 섭이 그린 '시인 구상의 가족', 김용준이 그린 '이태준 초상', 백석의 시에 정현웅의 삽화를 매칭한 작품 등 예술계에서 끈끈한 교감을 나눈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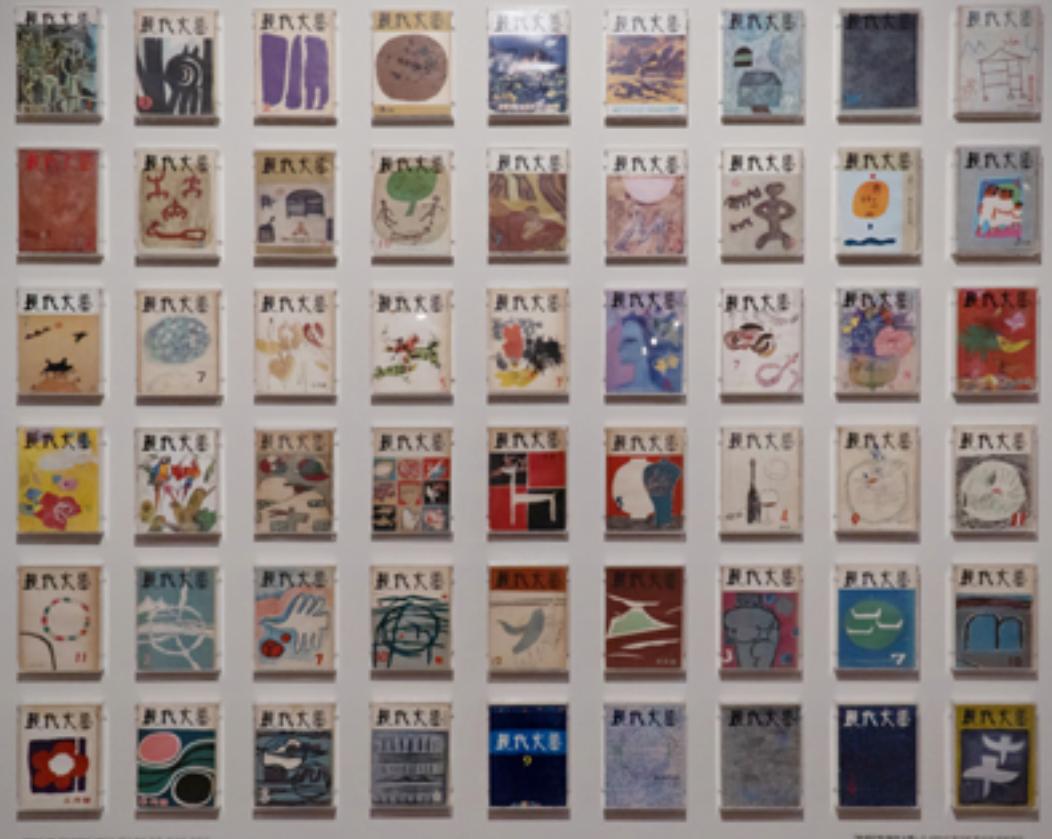


장옥진 &lt;무제&gt; 1972 캠퍼스에 유화 / 개인 소장

### 다재다능한 6인을 만나는 ‘화가의 글·그림’

제4전시실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로 이름을 알린 화가 가운데 문장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예술가 6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소박하고 진솔한 수필가로 유명한 근원 김용준,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만큼 문학에 심취했다는 김환기, 다양한 여성의 삶을 담아낸 수필을 쓴 천경자를 비롯해 장욱진, 한복, 박고석의 글과 그림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그림과 함께 작가의 숨결이 담긴 친필 문장을 읽어가다 보니 이들의 세계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당대 유명 화가들의 표지화가 실린 잡지 「현대문학」



### 진정한 미술과 문학의 만남, ‘현대문학 표지 아트월’

전시의 매듭은 1955년 1월 발행한 창간호부터 1987년 7월호까지 발행된 표지를 모아 구성한 ‘현대문학 아트월’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월간지 「현대문학」은 당시 가장 주목받는 화가의 작품을 표지로 장식했죠. 이 잡지들은 2021년 1월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구름재 박병순 서재)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916권의 근현대 잡지 중 일부인데요, 제4전시실에서 만났던 작가들의 작품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환기의 작품은 창간호부터 현대문학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발행 순대로 나열해 보면 화풍의 변천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현대문학의 표지는 한국의 근현대미술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갤리리이자, 진정한 미술과 문학의 만남이었습니다.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새로운 예술의 꽃을 피워낸 미술인과 문학인. 이번 특별전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는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이어진 그들의 관계망 속에서 근대 문학의 토양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전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  
음  
을  
읽  
다

32 미래엔인의 이중생활  
나를 넘는 즐거움, 크로스핏

38 엔키피디아  
회사 안 나만의 캐렌시아

42 시시풀풀  
구독 서비스, 어디까지 써봤니?

## 매 일 나를 뛰어 넘는 즐거움, 크로스핏

글\_만화콘텐츠개발팀 손주원 대리  
정리\_편집실  
사진 제공\_손주원 대리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운동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막상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매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크로스핏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로스핏을 통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만화콘텐츠개발팀 손주원 대리의 건강한 일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이 만화 개발자,  
퇴근 후에는 크로스핏 꿈나무!

안녕하세요! 만화콘텐츠개발팀 손주원 대리입니다. 만화콘텐츠개발팀은 어린이 학습 만화와 코믹 만화를 만드는 팀인데요, 저는 「내일은 발명왕」, 「설민석의 만만 한국사」 등 초등 대상 학습 만화를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미래엔에 입사했을 때 선배님들이 입을 모아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을 길러야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도서를 편집하고 마감하면서 체력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영부터 요가, 헬스, 스키와 스노보드, 복싱 등 다양한 운동에 도전하며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어느 순간 흥미가 떨어져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지인의 추천을 받아 시작한 것이 크로스핏(Crossfit)입니다. 정적인 운동보다는 활동적인 운동을 선호하는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말에 이거라면 꾸준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가까운 곳에 크로스핏 체육관이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승부욕이 있는 제 성격과 정말 잘 맞는 운동이더라고요. 지금은 남편보다 제가 더 크로스핏을 좋아합니다.





## 극복할수록 빠져드는 매력 부자 크로스핏

크로스핏이 국내에 들어온 지는 10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크로스핏은 10여 가지의 신체 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종합 선물 같은 운동입니다. 역도부터 달리기, 기계 체조, 파워리프팅 등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아령, 역기, 케틀벨, 메디신볼, 에어바이크, 스키, 로잉 머신, 샌드백 등 매일 다른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많은 분이 크로스핏을 마니아만 하는 운동으로 잘못 생각하시지만,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코치님이 개개인의 신체 능력과 운동 경험을 고려해 조언해 주시기 때문에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각자의 수준에 맞춰 운동할 수 있어요. 꾸준히 하면서 운동 강도를 점차 높여가다 보면 처음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단계까지 해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저도 무거운 기구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플레이트를 몇 개씩 끼고 운동할 수 있답니다.

크로스핏의 가장 큰 매력을 꼽으라면 매일 새로운 '와드(WOD, Workout Of the Day)'를 수행하며 기록을 경신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게시판에 기록을 적어 놓고, 자신이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다음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까, 내가 몇 파운드나 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열정이 샘솟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다른 운동을 즐기는 재미에 자꾸만 체육관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 함께 채우는 일상의 활력, 과욕은 경계하세요

크로스핏은 적게는 2~3명, 많게는 20명이 함께 시작하고 끝내는 커뮤니티 운동입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함께 운동하며 힘들 땐 서로 응원하면서 기운을 불어넣어 주다 보면 끈끈한 동료애가 생기죠. 그리고 휴식 시간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하루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인들은 크로스핏이 과격하고 따라 하기 힘든 건 아닙니다, 부상의 위험은 없는지 물어요. 사실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관절이 망가지는 운동, 몸이 상하는 운동, 다치는 운동, 근육을 키울 수 없는 운동 등 편견 가득한 정보가 많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걱정을 하며 시작했는데, 코치님과 회원들이 알려 주는 것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니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체육관에 가면 생각보다 여성 회원도 많고, 그 중에선 남성 회원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부상은 재미가 붙고 의욕이 지나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코치님들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신체 능력과 체력, 나이도에 맞게 운동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코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욕심내다가 조금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과유불급을 마음에 새기며 안전하게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욕심내거나 무리하지 않는다면 다칠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 차근차근 기록을 깨는 맛, 매일 더 건강해지는 즐거움

어떤 운동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크로스핏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끈기,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실력이 늘고, 더 재밌어집니다. 저도 처음엔 가벼운 무게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무거운 것도 가뿐히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로스핏에 관심이 있다면 부담은 잠시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기록을 깨는 맛에 풍물질 태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데드리프트 100kg를 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려면 운동을 앞으로 꾸준히 즐기며 해야겠죠?

벌써 크로스핏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해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체육관을 닫아야 했던 최악의 시기보다 지금이 행복하다 생각하며 방역 수칙을 엄수하면서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하면 어색할 정도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훌훌 벗고 회원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운동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때면 나를 뛰어넘는 크로스핏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 있지 않을까요?

## 우리 회사 구석구석, 나만의 케렌시아\*

글\_ 편집실

여러분은 회사 안에 즐겨 찾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업무로 과부  
하된 머리를 식히며 한숨을 돌리고, 나른한 몸을 스트레칭하고,  
점심시간 쪽잠을 청하면서 혼자서 조용히 쉬고 싶을 때 미래엔  
인들이 찾은 회사 안 나만의 휴식 공간을 소개합니다.

vol.321



\* 케렌시아(Querencia)

피난처, 안식처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최근에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휴식처, 또는 그런 공간을 찾는 경향을 의미한다.



### Querencia

1. vol.321에서 회사 앞마당과 초록빛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마치 강남에서 제주도를 만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스트로베리밀크티와 함께 나무를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순간이 좋습니다. 한숨 돌리고 재충전하는 저만의 힐링스팟입니다. - 마케팅지원파트 최유니 과장
2. vol.321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동료와의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가 좋습니다. - 개발기획팀 홍주희 과장
3. 아침에 출근하면 체온 체크하고 직진해서 진정성에서 돌체 라떼를 삽니다. 커피가 만들어지는 동안 소파에 앉아 창밖 가로수와 조경을 봅니다. 삭막한 느낌을 주지 않는 정원을 바라보면 온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 마케팅지원파트 박순영 대리



# 힐링 존 프 리 스



## Querencia

### Querencia

4. 우리 회사 계단은 두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주로 사용하는 계단 반대쪽에 있는 다른 계단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어서 편하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예체능팀 박준형 대리

5.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좌측 계단 통로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른 사우분들을 마주 칠까봐 조마조마하지만, 스트레칭의 개운함을 포기할 수 없어요. - 사회팀 공햇살 대리

6. 일하다가 틈틈이 계단에 가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계단을 활용해 온몸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 지면서 기분도 좋아져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영어팀 박혜민 사원

7. 9층 프리존 테라스는 힐링 공간입니다. 담쟁이 벽이 좋고, 창 밖의 외부 건물과 하늘이 만나는 스카이라인도 아름다워요. 오랫동안 머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아쉽네요. - 개발기획팀 황선득 차장

8.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에 9층 프리존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 들고 아주 잠깐이라도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햇볕도 받고 에너지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죠. - 교수학습기획팀 김경태 차장

9. 넓고 시원한 9층 프리존입니다. 예약할 필요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커피도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 정보인프라팀 한익준 차장

10. 점심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힐링존 안마의자에서 수면 모드로 하고 잠시 쪽잠을 잘 수 있습니다. - 아동콘텐츠개발팀 양지정 대리

## 구독 서비스, 어디까지 써봤니?

글\_ 편집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음원이나 전자책, 식료품 등을 넘어 속옷, 영양제부터 세탁, 청소 서비스까지

그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미래엔인들은 구독 서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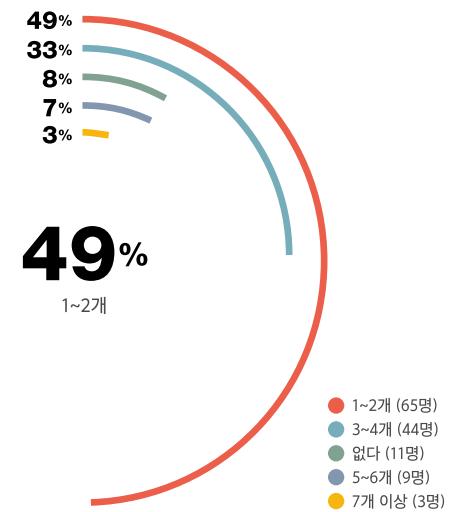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전체 참여자 수: 132명



01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49%**

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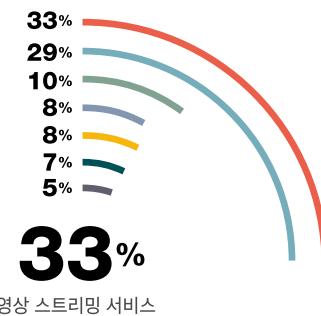
- 1~2개 (65명)
- 3~4개 (44명)
- 없다 (11명)
- 5~6개 (9명)
- 7개 이상 (3명)

구독 서비스 한두 개 사용은 필수!

답변자의 92%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은 수가 '1~2개(49%)'의 구독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3~4개(33%)'가 그 뒤를 이었으며, 5개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도 9%나 차지했습니다.

02

## 어떤 종류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나요?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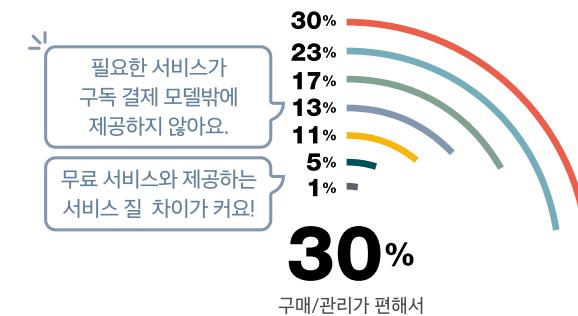
-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96명)
- 음원 서비스 (85명)
- 소프트웨어 서비스 (28명)
- 도서, 웹툰 서비스 (24명)
- 기타 (24명)
- 식료품, 화장품 등 쇼핑 서비스 (19명)
- 세탁, 청소, 정수기 등 생활 서비스 (15명)

## 실물 서비스보다 콘텐츠 이용을 더 많이

미래엔인들은 생활 서비스나 제품보다 영상이나 음원 같은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서비스 중에서도 ‘영상 스트리밍(33%)’ > ‘음원(29%)’ > ‘소프트웨어(10%)’ > ‘도서, 웹툰(8%)’ 순으로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03

##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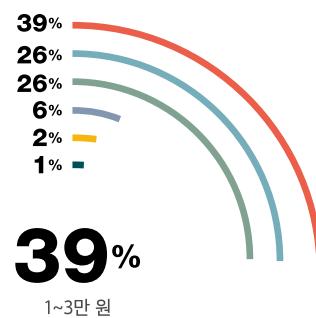
- 구매/관리가 편해서 (39명)
- 개별 구매보다 합리적인 가격(비용 분산 및 할인 등) (30명)
- 다양한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22명)
- 기타 (17명)
- 구매/관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15명)
- 트렌디한 제품을 가장 먼저 사용해 볼 수 있어서 (7명)
- 업무상 필요해서 (2명)

## 편리하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이용한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구매/관리의 편리함(30%)’과 ‘개별 구매보다 합리적인 가격(23%)’을 꼽았습니다. 무료 서비스와 서비스 질의 차이가 크고, 필요한 서비스가 구독 방식만 제공하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습니다.

04

## 구독 서비스 결제에 드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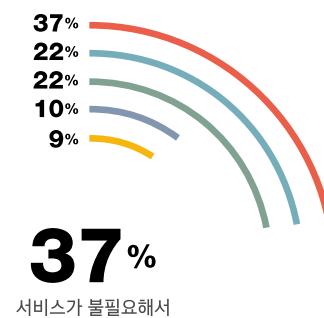
- 1~3만 원 (53명)
- 3~5만 원 (34명)
- 1만 원 이하 (34명)
- 5~10만 원 (8명)
- 20만 원 이상 (2명)
- 10~20만 원 (1명)

## 구독 서비스에 사용하는 비용은 5만 원 미만

구독 서비스에 한 달에 '1~3만 원'을 사용한다는 사람이 39%로 가장 많았고, '3~5만 원 이하', '1만 원 이하'가 각 26%로 나란히 둘째로 많았습니다. 구독 서비스에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1%)도 있었습니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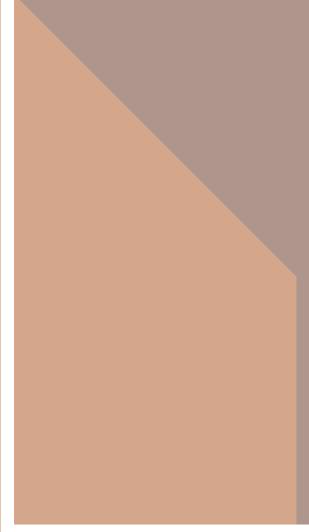
##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서비스가 불필요해서 (49명)
-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29명)
- 비싼 비용 (29명)
- 기타 (13명)
-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싶어서 (12명)

## 구독 서비스, 먼저 써보고 판단한다

구독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불필요하다(37%)'고 판단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체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는 구독 서비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내 취향과 습관을 파악해 잘 사용한다면 현명한 소비를 이끄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 건강한 소통과 먹거리의 가치를 읽는 커뮤니티 서점, 우분투북스

글\_ 편집실  
사진\_ 뉴토피아 프로덕션



건강한 삶에 대해 어느 때보다 진심인 요즘, 자연의 가치와 좋은 먹거리 그리고 마음을 위로하는 소통으로 채워진 서점이 있습니다. 자연, 건강, 먹거리를 주제로 펼쳐진 책의 숲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건강한 소통을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 서점 우분투북스입니다.

마음의 푸른 잎이 펼쳐지는 서점, 우분투북스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와 충남대학교 사이 조용한 골목 어귀에 초록빛 책의 숲이 있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몇 개의 식물이 한가롭게 볕을 쬐고 기다리는 ‘우분투북스’입니다. ‘우분투(UBUNTU)’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어인 데요, 2016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온 이용주 대표는 이곳을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닌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책방 내부로 들어서면 오두막처럼 아늑한 공간에 자연, 건강, 먹거리를 주제로 한 책들이 가득합니다. 처음엔 이름 때문에 카이스트 공학도들이 문을 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컴퓨터 운영체제와 같은 우분투란 이름 때문에 전공서적을 사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서가에 꽂힌 책들을 보고 이내 돌아가곤 했다네요.

“주 방문객은 주로 자연이나 건강,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40대 이상입니다. 근처에 대학이 두 개나 있지만, 대학생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문학적 갈증이 있는 몇몇 학생이 꾸준히 찾아오죠. 그렇게 인연을 맺은 손님 중에는 이 공간이 좋아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졸업 후에도 안부를 계속 주고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방 앞에 꽃과 화분으로 작은 화단을 꾸며준 단골손님부터 책을 읽고 나면 답장을 보내주는 10살, 6살 꼬마 손님, 서점 개점 4주년을 맞아 직접 그린 초상화를 건네준 손님까지 서점을 연 이후 5년여의 시간은 책 속에서 사람과 마음을 쌓아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용주 대표는 손님들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추천하고, 서점을 즐거운 발견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더 많은 분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싶어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엄선한 도서를 보내드리는 정기구독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의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해 책을 고르고, 한 명 한 명 손글씨로 인사를 적어 보내 드리죠. 때로는 답장을 보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 단순히 책을 주고받는 이상의 교감이 형성되죠.”

이용주 대표의 아날로그적 감수성은 지역기업과 업무협약을 맺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한 부서에서 직원의 생일 선물로 책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용주 대표는 예쁜 포장과 함께 따뜻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직원들이 입소문을 내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이어졌고, 이것이 분기마다 한 번씩 기관장 추천도서를 보내는 업무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 깊이 있는 생각으로 이끄는 북큐레이션 연구소

우분투북스의 서가에서는 베스트셀러나 요즘 또는 주제의 책을 찾기 힘듭니다. 대신 건강과 자연, 식문화, 공동체, 환경, 사회적 경제 같은 이야기가 입담을 과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주 대표의 경험과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점을 열기 전 출판사와 도서관재단에서 일했고, 출판사에서 식문화, 건강 관련 책을 만들었던 이력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길가에 핀 꽃을 보며 그동안 이 흔한 꽃 이름 하나 모르고 살았구나 생각하며 자연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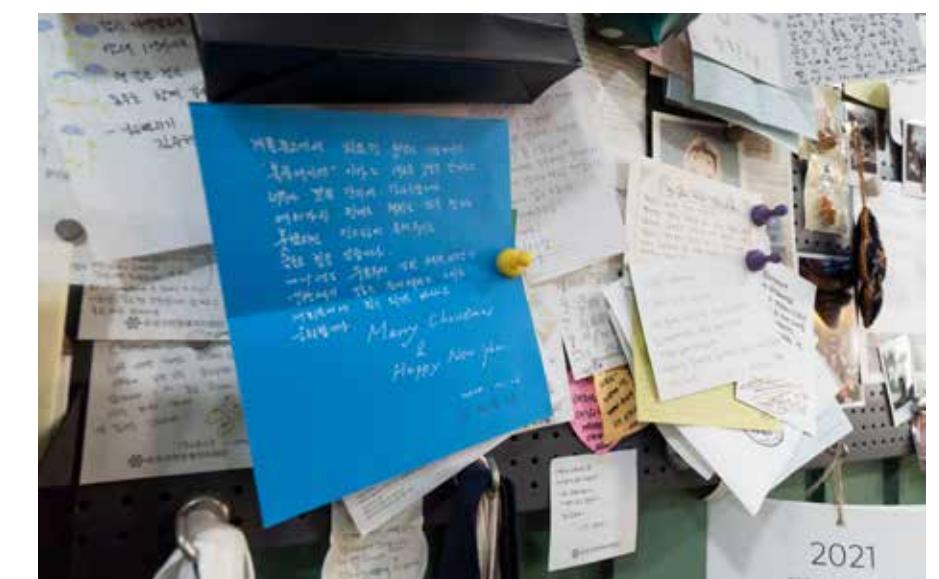
“학기 초엔 참고서나 대학교재를 들어놔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야 손님이 많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담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곳을 찾은 손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찾아내는 재미는 없어지겠죠.”

이용주 대표는 북큐레이션 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큐레이션이란 단순히 같은 주제의 책을 모아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과 관련된 서브 콘텐츠, 오브제를 동원해 하나의 전시처럼 기획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서점 한쪽에는 이용주 대표가 직접 큐레이션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매달 시의적절한 주제로 구성한 이 공간은 서점을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코너를 나눈

일반 서가 곳곳에도 주제와 관련된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놓아두어 책을 찾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최근 북큐레이션으로 책에 흥미를 갖게 해 독서를 장려하는 도서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의 역할이 단지 원하는 책을 빌려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지역 도서관의 요청을 받아 북큐레이션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대표는 많은 서점들이 단순히 유사한 주제의 책만 모아 놓고 북큐레이션이라 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북큐레이션의 의미와 방법을 알리기 위해 강의를 하고, 독립서점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조언하는 자리를 마련해 독자들이 책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2021

### 책과 건강한 먹거리로 도시와 농촌을 잇다

우분투북스는 단지 건강과 먹거리에 관한 책을 소개하는 공간을 넘어 유기농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농촌과 도시를 잇는다’는 콘셉트로 소규모 친환경·유기농 농가가 겪고 있는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시인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건강과 먹거리인 만큼 이 곳을 찾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소개하고, 소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수 있다면 책을 통한 소통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용주 대표는 2015년 도서관재단에서 근무할 때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모아 소설 출판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맷은 인연과 함께 새로운 사업 도전에 나섰습니다. 때때로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마련해 작은 직거래 장터를 만들기도 하고, 농촌 특산물을 책과 함께 묶어 배송해 주는 사업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점을 찾는 분들과 함께 지역 토종 씨앗으로 재배한 로컬 작물 판매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가끔 정기구독을 오래 유지해 준 고객들에게 농산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분들과 소비자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통해 확장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이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농민과 도시민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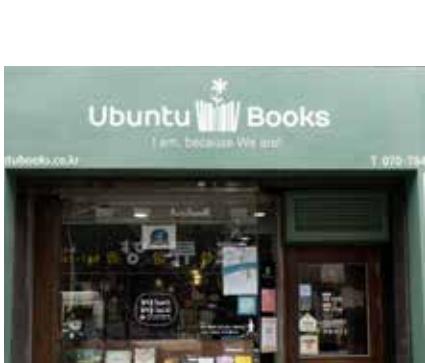
### 좋은 손님이 많이 오는 책방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책을 읽는 이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 독립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를 조율하고, 마음에 여유를 채우는 책의 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용주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독립서점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합니다.

“최근에 많은 서점들이 카페를 겸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서점을 지역 사람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인식해서 일부러 서점 안에 카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서점들을 둘러보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적인 정서가 깃든 서점, 교류와 연대의 공간으로써 서점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에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서점들이 많습니다. 이용주 대표는 매년 이런 곳을 방문해 새로운 운영 방식을 배우고, 차별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서점 오픈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서점이 더 많아지길 응원합니다.

“우분투북스를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소통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주제와 가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분투북스가 좋은 손님이 많이 오는 책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우분투북스

**주소** 대전시 유성구 어은로51번길 53  
**문 여는 시간** 평일 오전 11시~오후 9시,  
 토요일 오후 12시~9시(일요일, 국경일 휴무)  
**전화** 070-7840-1559  
**홈페이지** [www.ubuntubooks.co.kr](http://www.ubuntubooks.co.kr)  
**인스타그램** @ubuntubooks



## 만화로 키워 온 꿈과 인연 그리고 캐릭터의 힘

만화 작가 **홍종현**이 말하는 「내일은 실험왕」

글\_ 홍종현 / 정리\_ 편집실



2006년 첫 발간 이후 2020년 50권을 끝으로 시즌1을 마친 「내일은 실험왕」.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내일은 실험왕」의 인기 뒤에는 한 아이가 성인이 되고도 남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화 속 캐릭터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만화 작가 홍종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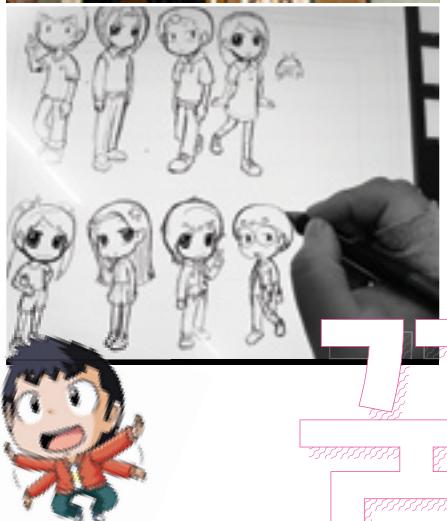
올여름 「내일은 실험왕」의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 만화에서 시작된 '꿈'

제가 만화 작가의 꿈을 꾸게 된 것은 국내 최초의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꼽히는 김정기 감독의 「로보트 태권V」 때문이었어요. 우리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로봇과 결합시켜 만든 「로보트 태권V」는 당시 초등학생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저 역시 멋지게 적을 물리치는 태권V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빠져 들었답니다. 그리고 만화 작가를 꿈꾸기 시작했죠.

그 꿈은 커 가면서 차츰 구체화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출판사에 작품을 공모하며 만화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영점포」라는 청소년 만화 잡지에 「영등포 시리즈」라는 짧은 옴니버스 만화를 연재하며 작가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간 소년 만화 잡지 「아이큐점포」에 명랑 무협 판타지 「태극태을」을 정식 연재하며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SF나 사이버펑크 장르에 심취해 있었지만, 지금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대인 관계가 어설픈 혼자 놀기의 달인입니다. 그렇다고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는 편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종이 쑤시는 체질이라 혼자서 여행이나 캠핑을 떠나는 등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곳곳을 유랑합니다.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와 SNS에 소소한 일상과 작품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고요.



# 인연

## 「내일은 실험왕」과의 특별한 ‘인연’

「내일은 실험왕」이 처음 발간된 것이 2006년 10월이니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당시 다른 학습 만화를 몇 개월간 준비하다 무산된 직후여서 학습 만화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있었고, 실험 만화가 재미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연재를 쉬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내일은 실험왕」과는 이어질 인연이었나 봐요. 지금 돌이켜 보면 참 다행입니다.

「내일은 실험왕」이 15년간 50권을 발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스토리와 재미 있는 연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실험 키트를 포함한 교육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러워하셨던 것 같고, 아이들은 캐릭터와 스토리에 매료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15년간 그려 온 「내일은 실험왕」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아끼던 제자들을 졸업시키는 선생님의 기분은 이런 것일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정이 든 캐릭터들이 저를 떠나 스스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범우주, 내가 사랑하는 ‘캐릭터’

학습 만화는 스토리 작가님이 학습적인 내용이나 드라마적인 스토리를 잘 구성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캐릭터 만들기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내일은 실험왕」 역시 스토리 작가님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스토리나 콘티를 주시면 만화적인 요소에 맞게 수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화의 캐릭터에는 성격이나 개그 포인트에 저마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에 맞게 표정 짓고 행동해야 캐릭터의 매력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캐릭터의 힘이기도 하지요. 아무래도 캐릭터의 성격이나 개그적인 요소, 상황에 따른 액션이나 표정 등 세밀한 부분엔 만화를 그리는 제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편입니다. 만화뿐만 아니라 필요

한 경우 만화 작가가 스토리에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50권을 만들며 전반적인 캐릭터의 성격이나 흐름을 흔들리지 않게 잡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요. 스토리나 연출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이런 부분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했고요.

오랫동안 사랑받은 만화는 캐릭터의 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실험왕」에서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중 가장 정이 가는 캐릭터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범우주’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면은 없지만 특유의 순발력과 창의력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우리 주변에 하나쯤 있을 법한 캐릭터거든요. 제가 그린 또 다른 학습 만화인 「내일은 발명왕」에서는 ‘장재주’에게 마음이 가는데요, 잘생기지 않았는데 시크하고, 공부엔 관심 없으면서 조립 실력은 프로급인 다소 엉뚱한 캐릭터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캐릭터들이 서운해할까요?



Q. 그동안 미래엔을 통해 소개했던 다양한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이며, 가장 어렵게 그린 작품은 무엇인가요?

「내일은 실험왕」부터 「내일은 발명왕」, 「내일은 로봇왕」, 「에그박사」, 「에그박사의 채집 일기」까지 그동안 미래엔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출간해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게 그린 시리즈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내일은 실험왕」이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미래엔과 처음 인연을 맺은 작품이기도 하고, 함께한 시간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시리즈는 「내일은 로봇왕」인데요, 「로보트 태권V」가 저를 만화가의 길로 이끌었기에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로봇을 그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Q. 현재 「내일은 실험왕」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시즌1과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올여름에 출간될 시즌2에서는 시각적인 실험, 미래 과학 등 과학적 호기심을 확장시킬 주제와 정보 페이지 리뉴얼 등을 통해 시즌1과 다른 차별점을 두고자 합니다.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기 위해 스토리 작가, 개발팀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인공 이외에 크루 형식으로 후배들이 등장해 더 풍부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시즌2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Q&A

Q. 「내일은 실험왕」이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만큼 열혈 팬들도 많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독자가 있다면요?

독자와의 소통은 주로 SNS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리즈다 보니 기억에 남는 독자분도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꼽으라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한 소녀 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은 실험왕」 시리즈를 재미있게 읽고, 새 시리즈가 나오기를 늘 기다린다는 그분의 말에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만화를 그려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Q. 마지막으로 「내일은 실험왕」 시즌1을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과 시즌2에서 만날 새로운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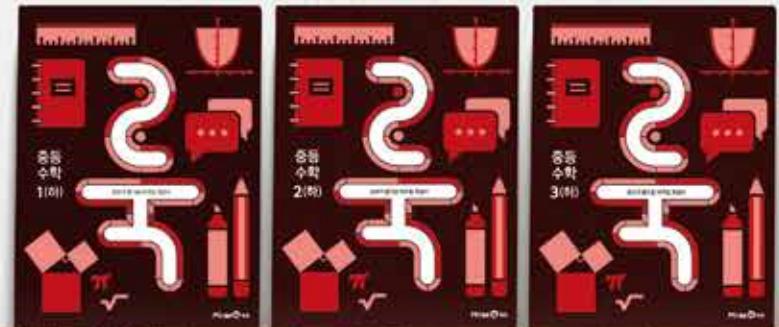
초등학교 때 1권을 봤던 독자들이 이미 20대가 되었을 텐데요, 다들 하는 일 잘돼서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실험왕」 시즌2와 함께 만나 뵙 새로운 독자 여러분도 새로운 캐릭터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린 만화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학 개념들을 즐겁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합니다.



미래엔을  
읽다

- 64 신간 소개
- 70 미래엔 뉴스
- 76 빨간 우체통
- 78 사우동정

미래엔 에듀



### 룩 중등 수학

1(하), 2(하), 3(하)

저자\_ 미래엔 콘텐츠연구회

『룩』은 비주얼 자료로 핵심 개념을 표현하여, 쉽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개념서이다.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거나 생각을 시각화하여 쉽게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개념의 흐름을 하나의 비주얼로 구현하여 핵심을 잡아주고 이를 시각적, 구조적으로 표현하여 창의적인 학습 능력과 사고력을 길러준다. 뿐만 아니라 비주얼로 개념을 한 번에 학습하고 기본 문제로 기초 실력을 다질 수 있다. 또한,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 핵심 문제를 선별, 수록한 마무리 테스트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미래엔 아이 세움



### 올리드 중등 역사

1-2, 2-2

저자\_ 강승호, 이수정 외 4명

『올리드(Alllead)』는 핵심 개념 정리와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내신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필수 개념서이다. 교과서 핵심 개념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학습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시험에 꼭 나오는 알짜 자료만 엄선하여 구성하였다. 학습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개념 확인 문제, 실력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실력 문제, 고난도 문제와 서술형 문제까지 단계별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개념을 익히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단원별 개념 마무리와 문제 마무리로 시험 직전 빠르게 시험 대비 학습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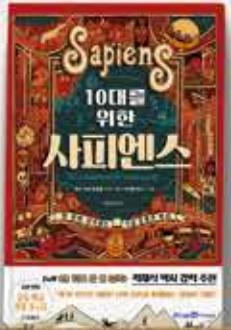
### 전설의 모험왕 엉덩이 댄디

1. 보물은 내게 맡겨라!

원작\_ 감수\_트롤 | 글\_ 구성\_ 하루하라 로빈슨  
그림\_ 기쿠치 야기히로 | 옮김\_ 김정화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의 아빠인 엉덩이 댄디가 신입 유적 조사원이었던 젊은 시절 모험 이야기를 그린 코믹북이다. 바다너머 박물관에 취업한 엉덩이 댄디는 조수 '혜해'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유적을 조사하고 보물을 지키는 모험을 하게 된다.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에 등장해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던 엉덩이 댄디의 새로운 영웅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시원하고 통쾌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미래엔아이세움



## 착해도 너무 착한 롤리의 모험

저자\_ 제프 키니 | 번역\_ 지혜연

## 10대를 위한 사피엔스 : 한 번에 정리하는 인류 문명의 역사

저자\_ 벵트 에릭 엥홀름 |  
그림\_ 요나 비에른세르나 | 감수\_ 김아영

「윔피 키드」의 신스틸러, 롤리가 두 번째 책으로 돌아왔다. 롤리가 쓴 이번 이야기는 눈의 마법사에게 납치된 엄마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 영웅들의 이야기이다. 한편, 롤리의 친구 그레그는 롤리의 글을 책으로 출간한 뒤 영화로 만들고, 포스터와 장난감을 만들어 팔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며 동업을 제안했다. 과연 롤리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엄마를 구해 내고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롤리는 그레그의 참견과 간섭을 이겨내고 무사히 책을 완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자.

## 저 책은 절대 읽으면 안 돼!

저자\_ 임지형 | 그림\_ 정용환

'책 바보' 9살 준이의 파란만장한 책 읽기 프로젝트를 담은 이야기이다. 공부보다는 게임을, 책보다는 유튜브를 훨씬 좋아하는 9살 준이. 어느 날 엄마가 빨간 책은 절대 읽으면 안 된다고 하자 눈앞에 아른거린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 같은 아이들이 종교와 정치, 그리고 자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유쾌하게 조명한다.

## 에그박사의 채집 일기 1

원작\_ 에그박사 |  
저자\_ 박승이 | 그림\_ 홍종현

취학 전 아동부터 초등 저학년 아동들을 위한 자연 생물 관찰 만화이다. 에그박사와 함께 자연을 누비며 다양한 생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채집 일기와 관찰 보고서, 생물 사진첩을 통해 생물의 다양한 정보를 배워보는 학습 구성으로 짜여졌다. 실제 크기의 생물 사진 스티커를 뜯어 붙이며 나만의 도감을 만들 수 있기에 실감 나는 채집 활동을 할 수 있다. 책을 통해 여러 생물들을 만나고 나면, 자연과 생물을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의 마음이 한뼘 더 자랄 것이다.

## 뉴욕에서 보물찾기

저자\_ 포도알친구 |  
그림\_ 강경호

이번 「세계 도시 탐험 만화 역사 상식」에서 스무 번째로 만나 볼 곳은 자유로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도시 뉴욕이다. 통통 튀는 캐릭터들이 꾸려 가는 흥미진진한 만화 각 장의 뒷부분에는 뉴욕의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페이지, 뉴욕이 세계적인 경제 도시로 거듭나기까지의 역사를 담은 페이지, 뉴욕의 먹거리를 소개한 페이지 등이 수록되었다. 또한 다른 그림 찾기와 색칠놀이 등을 실어 재미를 더했다.

## 웃소 1

원작\_ 웃소 |  
저자\_ 박동명 | 그림\_ 박강호

인기 크리에이터 '웃소'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화책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한 코믹북이다.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유형별 공감' 콘텐츠부터 요리 콘텐츠 '쿡소', 각종 미션을 수행하는 '하찮은 대회' 등 웃소의 재치 있는 콘텐츠를 한곳에 다 모았다. 또한 영상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유형 테스트, 웃소 상식, 다른 그림 찾기, 웃소 인터뷰 등 다양한 부록 페이지를 수록하여 유튜브 채널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북 풀 리 오

와 이 즈 베 리



맨땅에 캠핑

미래 시나리오 2022 :  
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

저자\_ 권수호

저자\_ 김광석·김상윤·박정호·이재호

바야흐로 '캠핑'의 시대다. 차박, 글램핑, 오토캠핑, 백패킹 등 캠핑의 종류도 방식도 다양하다. SNS 속 고수들처럼 나도 멋지게 해보고 싶은데 현실은 마음처럼 쉽지 않다. 이런 초보 캠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초보 맞춤형' 캠핑 애세이. 저자 역시 초보 캠퍼로, 책 제목처럼 그간 맨땅에 구르면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초보이기에 겪게 되는 생생한 경험담을 위트 있는 글솜씨로 재미있게 풀어냈다. 초보라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읽다 보면 새어나오는 웃음도 막을 길이 없다. 술한 실패를 거듭하며 얻게 된 노하우도 가득하다.

현 대 문 학



사물의 뒷모습

저자\_ 안규철

조각가, 예술가라는 장르를 뛰어넘어 사물과 형상, 나아가 자신의 삶의 태도와 사유를 소박하고 순수하게 표현한 안규철의 에세이집이다. '내 이야기로 그린 그림'이란 제목으로 월간 「현대문학」에서 2010년부터 11년간 연재해오고 있는 글 중에 2014년 1월부터 연재한 글과 그림 67편을 엮은 것이다. 사물에 대한 사유를 담은 '식물의 시간', 말과 언어에 관한 생각을 묶은 '스무 개의 단어', 미술과 글쓰기라는 일에 대한 방식의 모색 등을 모은 '예술가들에게 은혜를', 삶의 체험이 담긴 에피소드로 인생을 들여다본 '마당 있는 집'까지 총 4개 장으로 구성했다.

브라이턴 롤

저자\_ 그레이엄 그린 |

역자\_ 서창렬

20세기 영국의 대표 문인 그레이엄 그린의 장편 소설이다. 영국추리작가협회와 미국추리작가협회에서 세계 추리소설 100선에 선정한 이 책은 냉혹한 살인자와 아마추어 탐정의 대결이라는 흥미진진한 오락물의 틀 안에 가톨릭 신앙에 대한 물음을 담고 있어, 탐정 소설의 형식을 빌려 쓴 종교 문학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절판된 지 수십 년 만에 정식 계약을 맺고 출간되는 이번 한국어판에는 2004년 그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펭귄출판사에서 펴낸 확장판에 부친 노벨문학상 수상자 J. M. 쿠시의 해제가 특별히 함께 수록되었다.

스타니스와프 렘 -  
미래학 학회 외 14편

저자\_ 스타니스와프 렘 |

역자\_ 이지원 · 정보라

우주의 불가해 속 인간 존재를 탐험했던 '미래의 철학자' 스타니스와프 렘의 정수(精髓)를 담은 단편 선집.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렘은 비영어권인 폴란드인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SF 작가로, 아서 C. 클라크, 아일작 아시모프, 필립 K. 딕과 함께 20세기 SF를 대표하는 거인이다. 폴란드 독자들의 인기투표로 엄선된 렘 최고의 단편 열다섯 편을 모은 이 책은 렘을 몰랐던 독자들에게는 입문서가, 렘의 애독자들에게는 선물 같은 소장본이 될 것이다.

## 미래엔

SBS-TV <서바이벌 가족 퀴즈 쇼 - 퀴즈몬>  
제작 지원

미래엔이 SBS-TV의 신규 교양 프로그램 <서바이벌 가족 퀴즈 쇼 - 퀴즈몬>의 제작 지원 및 협찬을 진행한다. <퀴즈몬> 프로그램은 아이의 시선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 수 있는 다양한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미래엔 도서의 내용으로 다수 구성되어 있다. 6월 3일 첫 전파를 탄 방송 내용에는 미래엔 아이세움 코믹북의 주인공인 크리에이터 ‘웃소’가 직접 출연해 퀴즈를 출제했으며, 각 라운드에는 미래엔의 초등 참고서 ‘하루 한장’에서 엄선한 유익하고 재밌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미래엔은 자사 출판 브랜드인 아이세움에서 출간된 책을 각 출연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출연자의 이름으로 100권씩, 우승자의 학교에 200권을 기증하고 만약 우승자가 3연승에 성공하면 총 500권을 기증한다. 또한, 재미있고 기발한 오답을 말한 출연자에게는 미래엔 계열사인 영실업에서 출시한 완구를 선물로 증정한다. 아울러 특정미래재단은 매회 우승자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왕중왕전 우승자에게는 장학금 500만 원을 수여한다.

2021년도 ‘초등학생 톡톡 손글씨 공모전’ 및  
‘창작 글감 공모전’ 개최

미래엔이 9월 17일까지 4개 공모전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모집 분야는 ‘초등학생 톡톡 손글씨 공모전’, ‘창작 글감 공모전’, ‘어린이책 공모전’, ‘성인 실용 에세이 공모전’ 4개이다. ‘초등학생 톡톡 손글씨 공모전’은 만 7~12세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글 중 1편을 골라 원고지에 연필로 작성하면 된다. 응모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편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함께 진행한다. ‘창작 글감 공모전’은 초등 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우수 글감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 글솜씨’ 분야와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 대상의 ‘교과서 창작 글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어린이책 공모전’은 창작 그림책 분야, 인문·교양 원고 분야, 만화 분야(학습 만화 부문, 창작 만화 부문)로 나누어 진행하며, 올해 처음 신설한 ‘성인 실용 에세이 공모전’은 챕터 1회 분량의 미발표 실용 에세이를 모집한다.

## 온라인 인쇄 전문 사이트 ‘프린트엔’ 재오픈

미래엔이 최근 변화하는 인쇄 시장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인쇄 서비스 사이트 ‘프린트엔’을 리뉴얼 오픈했다. 프린트엔은 미래엔의 인쇄 전문 서비스 브랜드로서 책자, 날장, 스티커, 캘린더, 시험지, 봉투 등의 인쇄 및 현수막, 배너 등의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숙련된 인쇄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을 통해 디자이너 등 전문가는 물론, 인쇄 주문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견적 산출부터 제작 주문까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 또한 일반 인쇄와 디지털 인쇄 견적이 동시에 산출되는 ‘자동 견적 산출 시스템’을 도입, 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인쇄 방식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목정미래재단, ‘제7회 미래교육상’ 최종  
심사 결과 발표

목정미래재단이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 수업 공모전 ‘제7회 미래교육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 교육을 주도하는 역량 있는 교사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미래교육상의 올해 대상 수상자로는 김재원 오태초등학교 교사가 선정되었다. 목정미래재단이 주최하고 미래엔 앰티처가 후원한 ‘제7회 미래교육상’은 미래 교육 연구, 인성 교육 혁신, 학교 공간 혁신의 세 분야로 진행되었다. 응모작들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공감상 3팀, 장려상 6팀, 본상 20팀, 입상 2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재원 교사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미래엔 교과서·참고서 집필진 명예 타이틀이 부여되었으며 재직 학교에도 도서 100권이 주어졌다. 최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원과 미래엔 교과서·참고서 집필진 등록, 재직 학교에 도서 100권이 수여되었다. 대상 수상자와 최우수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재직 학교로 직접 찾아가 상금과 상품을 수여하는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미래엔  
에듀파트너

## 영실업

## 교육 전문 기관 대상 SW 교육 위탁 사업 운영

##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우리 아이, 첫 기부' 캠페인 진행

미래엔에듀파트너는 SW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를 인정받아 다양한 교육 전문 기관으로부터 SW 교육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미래엔에듀파트너에서 운영하고 있는 SW 교육 사업은 포항테크노파크 주관 '경북 SW미래채움강사 양성과정',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주관 '울릉도 SW체험 캠프', 강원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주관 '찾아가는 코딩교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주관 '고등학교 AI(파이썬활용) SW프로그램' 등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 형태, 기간, 장소, 운영 예산 등 고객 상황에 맞춘 미래엔에듀파트너만의 차별화된 SW 교육 운영 전략에 많은 기관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의 만족도도 높아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 고객이 유관 기관에 소개하는 선순환을 불러일으켜 SW 교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미래엔에듀파트너의 적극적인 사업 운영은 SW 교육 인식 개선은 물론, 지역적 조건 등에 따른 SW 교육 불균형 해소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콩순이의 율동교실' 시리즈 큰 인기

2021년 상반기 새롭게 돌아온 '콩순이의 율동교실' 시리즈가 화제다. 이번 시리즈는 중독성 강한 음악과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율동을 강조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인기 가요 '빠빠빠'와 컬래버레이션한 '콩순이 빠빠빠 율동송'은 공개 한 달 만에 조회 수 220만 뷰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율동송을 따라 하는 챌린지 이벤트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친숙한 세계 유명 동요를 콩순이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콩순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 친구 빙고(Bingo)', '머리 어깨 무릎 발(Head, Shoulders, Knees & Toes)'이 이미 공개되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유명 동요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친숙한 멜로디와 귀여운 율동으로 더욱 친근감 있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콩순이의 율동교실'은 아이들의 즐거운 성장을 도와주는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 KBS2-TV &lt;또봇V 우주수호대&gt; 애니메이션 방영

새로운 또봇 시리즈 <또봇V 우주수호대>가 5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KBS2-TV에서 방영 중이다. <또봇V 우주수호대>는 직전 시즌의 주인공인 필승이의 아들 태풍이가 새로운 파일럿으로 등장, 동료와 가족을 잃은 또봇과 만나 가족의 의미를 알아가고 함께 지구를 지키며 히어로로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이번 시즌에서는 우주수호대 또봇 타키온, 와일드치프, 제트썬더 등 각각의 매력을 지닌 또봇 캐릭터들이 새롭게 등장하여 우주해적단과 맞서 싸우며 화려한 액션과 재미를 선보인다. K-TOY의 선두 주자인 또봇 시리즈는 오랜 시간 어린이들에게 성취감을 선사하며 창의적 성장을 돋는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다.



미래엔  
에듀케어아담리즈수학, 부산진구센터와 세종센터  
신규 오픈

아담리즈수학 부산진구센터와 세종센터가 신규 오픈했다. 아담리즈수학은 24개월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400여 종의 다양한 교구를 통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구 중심 수학 교육 전문 학원이다. 아담리즈수학은 세계적인 수학자 아담 리즈(Adam Ries)와 프리드리히 프뢰벨(Friedrich Wilhelm August Fröbel),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사상과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아이들의 수학적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수업은 아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이끌어 주고, 스토리텔링 접근과 다양한 교구 활동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입회 관리부터 단계별 학습 평가까지 과학적으로 학습을 관리해 주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업 후 5~10분 동안 이루어지는 학부모 브리핑을 통해 아이의 학습 발달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 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바우라움, 성동구청과 '함께 행복하기'  
사업 진행

바우라움은 성동구청과 협약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함께 행복하기' 시민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함께 행복하기' 사업은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반려견 홈클래스'와 가족이 함께 동물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는 '해피투개더 동물보호 교육'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찾아가는 반려견 홈클래스'는 반려견 짖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바우라움 변성수 원장이 직접 찾아가 올바른 반려 환경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해피투개더 동물보호 교육'은 온 가족이 함께 동물보호 이론 및 반려견과 교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실습 교육으로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예비 및 초보 반려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6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미래엔  
서해에너지'21년 무사고·무재해 달성 가스 안전 결의  
대회' 실시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지난 3월 11일 당진 본사에서 안전 실천과 사고 예방으로 지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다짐을 결의하는 '가스 안전 결의 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 대회에서는 '시설 건전성 확보,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 비상 대응 체계 안정화, 안전 문화 효율화'의 4가지 목표 실현을 다짐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 임직원들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조항 해설'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 시 안전 조치 현황에 대한 세심한 점검 실시를 통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 '희망 티셔츠 만들기' 봉사 활동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후 난민 어린이를 돕기 위한 '희망 티셔츠 만들기'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 활동에 참여한 미래엔서해에너지 한마음봉사단 일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라며, "따뜻한 마음을 담은 희망 티셔츠가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한마음봉사단 운영 외에도 교육 장학 사업, 가스 기기 지원 사업, 가스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 에너지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지난호를 읽고

 사보 독자 참여

응모 방법 모바일 QR코드

사보에 대한 감상과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좋은 사보를 만들겠습니다.  
신규 구독 신청 및 소정의 사은품 배송을 위해 주소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세요.



###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김상현(경기도 수원시)

‘미래 교육, 블렌디드 러닝’ 칼럼을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학습의 시대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져 학교도, 학생들도 모두 아직은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접목한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미래 교육이 잘 정착되어 학생들에게 더 행복하고 유익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 “신입 사원의 열정과 패기가 보기 좋습니다”

강영숙(인천광역시 부평구)

‘10기 신입 사원을 소개합니다’ 칼럼에서 새내기 미래엔인들의 모습을 보며 절로 환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들의 패기와 열정에 가득 찬 모습을 보며 제가 신입 사원이었던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실수가 곧 실패가 아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는 값진 경험으로 간주되는 유일무이한 시기인 ‘신입 사원’. 그 좋은 시절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있어 미래엔의 미래는 밝으리라 확신합니다.



###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임혜민(경기도 남양주시)

‘저는 행복한 집사입니다’ 칼럼을 잘 읽었습니다. 이진희 대리님이 처음 삼돌이를 만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스토리가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나아가 반려동물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우라움에서 두 주인공이 함께 하루를 보내며 찍은 사진들을 흐뭇하게 보면서 제 반려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 반려견과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사진으로 기록한다면 아주 값진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소중한 인연이 된 삼돌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상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조영민(경기도 의정부시)

향긋한 봄 내음 가득한 봄호를 잘 읽었습니다. 특히 ‘집콕 라이프 노하우’를 반갑게 읽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지치고 답답하던 차에 해당 기사가 눈에 번쩍 들어오더군요. 무엇보다도 미래엔 가족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추천해 준 알토란 같은 노하우들이 이기에 더욱 믿음이 갑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을 잘 메모해 두었다가 내게 꼭 맞는 아이템들을 골라 하나하나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 “재택근무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김동기(서울특별시 송파구)

이번 봄호에서는 ‘집에서 일이 잘 될까?’ 칼럼을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미래엔이 작년 말부터 도입한 재택근무와 관련해 만족도를 알아본 설문 칼럼의 결과가 저의 막연한 추측과 비슷하게 나와서 놀라웠습니다. 재택근무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그리고 재택근무가 더욱 잘 정착되기 위해 보완하고 갖춰야 할 점들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생각들이 그대로 담겼더군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한 소통의 현장을 본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꼭 읽어야 할 칼럼이었어요”

이미연(서울특별시 종로구)

‘찜오책방’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서재 같은 공간’이라는 책방 운영자 분들의 마인드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서점 방문을 참 좋아합니다. 서점에서는 다양한 책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배움에 대한 의욕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래엔 사보에서 소개해주신 ‘찜오책방’에서는 운영자 분들과 함께 책과 관련된 대화도 마음껏 나눌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책방 인근에 사는 분들이 어찌나 부러운지요.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멋진 서점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 두 배, 슬픔 반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생산운영팀	윤신근 사원	21.02.15
박물관	박은경 사원	21.02.15
과학팀	강영하 차장	21.02.22
초등수학팀	장지현 과장	21.03.02
교수학습기획팀	김은숙 대리	21.03.08
교수학습기획팀	조한희 대리	21.03.08
마케팅지원파트	박순영 대리	21.03.08
박물관	황세진 사원	21.03.11
박물관	민해주 사원	21.03.11
출판개발실	이혜영 과장	21.03.15
출판개발실	백선임 과장	21.03.15
아동콘텐츠개발팀	박인의 과장	21.03.15
단행본개발파트	정혜리 대리	21.03.15
과학팀	고영선 과장	21.03.22
과학팀	한예슬 대리	21.03.22
개발기획팀	정은정 사원	21.03.22
국어팀	허은실 과장	21.04.01
초등수학팀	박미라 과장	21.04.01
영어팀	이승재 과장	21.04.01
초등사회팀	이수현 과장	21.04.01
초등사회팀	박상희 차장	21.04.01
패키징영업팀	심석보 차장	21.04.01
마케팅지원파트	이주선 대리	21.04.05
사업개발팀	지현석 부장	21.04.12
디지털콘텐츠연구소	서민지 과장	21.04.19
마케팅지원파트	최유니 과장	21.04.19
출판디자인팀	김현중 사원	21.05.03
국어팀	이은숙 과장	21.05.10
초등사회팀	윤수현 대리	21.05.10
경영기획팀	김아람 대리	21.05.10
설립예체능팀	최규식 부장	21.05.10
생산지원팀	정문상 차장	21.05.17
경영기획팀	편수민 대리	21.05.24
교수학습기획팀	유예빈 사원	21.05.27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세요**

교육디자인2팀	진선영 자녀 출산	21.02.16
운전과	서진원 자녀 출산	21.03.08
정보인프라팀	허민행 자녀 출산	21.05.11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노조	정병욱 자녀 결혼	21.02.28
교육디자인1팀	유화연 본인 결혼	21.03.06
수학팀	김지현 형제 결혼	21.03.20
교과서R&D팀	조국희 본인 결혼	21.04.03
초등수학팀	심소정 형제 결혼	21.05.09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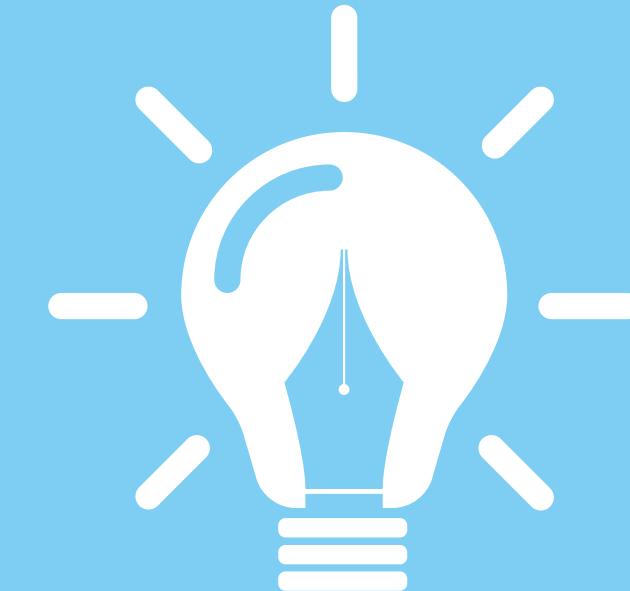
제본파트	신만영 장모 칠순	21.02.10
초등사회팀	조혜민 모친 칠순	21.02.19
과학팀	여은경 시모 칠순	21.02.21
정보인프라팀	이원섭 부친 칠순	21.03.04
생산지원팀	박광석 장모 회갑	21.03.10
교육디자인1팀	송혜란 모친 회갑	21.03.13
생산기획팀	신정우 장모 칠순	21.03.20
교육디자인1팀	손현미 모친 칠순	21.04.26
매엽과	장석열 부친 칠순	21.04.30
출판디자인팀	이서율 모친 칠순	21.05.12
국어팀	이은지 모친 회갑	21.05.16
마케팅지원파트	김나영 모친 칠순	21.05.17
제판파트	유재필 장인 회갑	21.05.27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생산지원팀	장상덕 모친상	21.02.15
초등국어팀	이상아 외조부상	21.02.15
박물관	남윤미 조부상	21.03.07
제본파트	육선영 부친상	21.03.08
만화콘텐츠개발팀	김다은 외조모상	21.03.23
생산지원팀	장상덕 형제상	21.03.25
국어팀	정윤숙 모친상	21.04.05
CS지원팀	이우성 외삼촌상	21.04.09
생산기획팀	장표순 외삼촌상	21.04.21
미래전략팀	김종수 조부상	21.04.29
채널영업팀	박세화 조모상	21.04.29
교육영업팀	장수범 조부상	21.04.30
제판파트	김성찬 장인상	21.05.12
출판디자인팀	당승근 외삼촌상	21.05.13
생산기획팀	신정우 외조부상	21.05.16
패키징생산파트	박영순 외숙부상	21.05.17
생산지원팀	최장섭 모친상	21.05.18

주최 | (주)미래엔

후원 |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 교과서박물관



# 2021 미래엔 공모전



2021.5.10.~ 2021.9.17.  
<https://contest.mirae-n.com>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엔 공모전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 **초등학생 손글씨 분야**

참여 대상 | 만 7~12세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 누구나

공모 내용 |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글 중 1편을 골라 쓴 글씨

참여 방법 | 우편 접수 또는 미래엔 공모전 사이트에서 접수

보내는 곳 | (065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 손글씨 공모전 담당자 앞

- **초등학생 글솜씨 분야**

참여 대상 | 만 7~12세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 누구나

주제 선정 | 자유 주제

공모 분야 | ①동시 ②기행문 또는 일기 ③독후감

응모 방법 | 미래엔 공모전 사이트에서 접수 [업로드 방식]

- **교과서 창작 글감 분야**

참여 대상 | 선생님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제 선정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글감으로 적합한 글  
(2015 개정 초등 국어와 교육과정 성취 기준 참고)

응모 방법 | 미래엔 공모전 사이트에서 접수 [업로드 방식]

# 2021 어린이책 공모전 & 덕후 실용 에세이 공모전

2021.5.10.~ 2021.9.17.

<https://contest.mirae-n.com>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엔 공모전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창작 그림책 / 인문교양 분야

**참여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제 선정** 자유 주제  
**공모 분야** ① 창작 그림책 : 미래엔 공모전 사이트에서 접수 후 접수증과 작품 우편 발송  
 ② 인문교양 : 미래엔 공모전 사이트에서 접수 [업로드 방식]  
**보내는 곳** (065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5층  
 (주)미래엔 미래엔 어린이책 공모전 담당자 앞

## 만화 분야

**참여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제 선정** 자유 주제  
**공모 분야** ① 학습 만화 ② 창작 만화  
**참여 방법** 기획안과 콘티/만화를 파일 형태로 제출  
**응모 방법** 미래엔 공모전 사이트에서 접수 [업로드 방식]

## 실용 에세이 분야

**참여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제 선정** 자유 주제  
**공모 분야** 실용 에세이  
**참여 방법** 원고지 약 70~100매,  
 글자수(공백 포함) 약 14,000~20,000자  
 분량의 파일 형태로 제출  
**응모 방법** 미래엔 공모전 사이트에서 접수 [업로드 방식]

주최 | (주)미래엔

교과서를 만듭니다  
 오늘, 교육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니까”

초등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 어린이 도서, 혁신 수업,  
 교수활동지원 플랫폼까지 미래엔이 앞서갑니다.



미래엔의 교수활동지원 플랫폼 초등 엠파이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www.m-teacher.co.kr](http://www.m-teacher.co.kr)



Mirae N